



## 자료적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의 활용을 통한 호스피스 교육평가에 관한 연구\*

백훈정<sup>1)</sup> · 김춘미<sup>1)</sup> · 최순영<sup>2)</sup> · 박순옥<sup>1)</sup> · 문진하<sup>1)</sup> · 김정숙<sup>1)</sup> · 김애정<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Hospice는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가 남은 생애를 끝까지 충만하게 살고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또한 증상을 완화시키며 안위를 제공하는 지지적 프로그램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죽음에 대해 종교적으로 승화된 의식을 갖춘 훈련된 인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Choi et al., 1998; Kim et al., 1999; Ro, Han, Yoo & Yong, 2001).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호스피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평가에 있어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양적 및 질적 평가를 통해 전인적인 교육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시도되어 정착되어가고 있다(Sung, 2002).

본 연구는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따라 호스피스 간호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보건복지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호스피스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교육전과 후의 죽음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의 호스피스 교육 평가들(Baek, Lee & Kim, 2001; Kim et al., 1999; Park, 2001)이 대체로 죽음의식에 대한 평가를 통한 양적 교육평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

육 후 대학생들의 교육 후 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을 활용한 평가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영적 요구에 부응하는 호스피스 인력으로서의 소양에 대한 교육평가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연구목적

호스피스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교육받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 교과목 수강 대학생의 교육 전과 교육후의 죽음의식 정도를 양적 도구를 이용해 조사한다.
- 호스피스 교과목 수강 대학생 중 입관경험 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 분석을 통해 호스피스 인력으로서 소양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양적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 재학생중 <호스피스>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주당 2시간씩 16주간 교육을 받은 2개과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충분히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이에 자발적

#### 주요어 : 호스피스, 간호교육

- \* 본 연구는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여주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처자 백훈정 E-mail: hjp711@naver.com)  
 2) 여주대학 간호과 조교수  
 투고일: 2005년 3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4월 22일

으로 동의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하는 여학생으로 12명이었다.

**연구설계**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의한 원시실험설계이며 종속변수가 호스피스 교육 후의 죽음의식을 포함한 관련경험 총체이므로 수량화할 수 있는 차원의 연구로는 부족하여 이들의 입관경험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언어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인 교육내용을 주차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차	교육내용	주차	교육내용
1	Orientation	9	증상별 관리 1
2	Hospice 개론	10	증상별 관리 2
3	죽음과 임종	11	사별가족의 지지
4	Hospice와 의사소통	12	특강 : 호스피스간호사의 간호경험담
5	산업체 인사 특강 : 호스피스과장	13	증상별 관리 3
6	통증	14	입관체험
7	통증완화	15	입관체험 후기 및 호스피스 종합토의
8	중간고사	16	기말고사

**연구도구**

- 양적 자료수집 도구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7문항, 죽음의식에 관한 25문항으로 모두 32문항의 설문지이다.

- 죽음의식(Death Orientation)

죽음의식은 임종과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의미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Templer와 Boyer가 개발한 죽음의식에 대한 도구를 Thorson과 Powell(1988)이 수정해서 만든 죽음의식 도구를 번역하여, 간호학 교수 2명, Hospice 전문요원인 수도자 1명, 간호사 2명과 연구자 전원이 함께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죽음의식의 정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언제나 그렇다'에 4점으로 배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의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의 정도와 죽음에 대한 의미의 의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7748이었다.

호스피스 교육전의 사전조사를 위해 2002년 8월 19일부터 2002년 8월 26일까지 호스피스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무응답이 있거나 알아볼 수 없게 응답한 설문은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호스피스 교육후의 사후조사를 위해서는 200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스피스 과목을 수강하면서 호스피스 교과목 수강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무응답이 있거나 알아볼 수 없게 응답한 설문은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 질적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개인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요면담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입관을 경험한 후에 느낀 점에 대해 말해주세요"였다. 또한 면담을 진행하면서는 대상자가 진술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구체화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하는 여학생으로 12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고려를 하였는데 즉, 연구자는 충분히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대상자들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면담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 SPSS/PC+ 8.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죽음의식에 대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교육전후 대상자의 죽음의식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의 차이를 t-test 및 ANOVA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수집된 질적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원 자료로부터 중요하고 긴밀한 사례(example), 주제,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복잡한 자료들을 의미 있고 다루기 쉬운 주제나 범주로 조직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이 분석방법의 목적이다(Patton, 2001).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간호학생들의 입관경험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면서 명명작업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양적 교육평가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자가 35명(27.6%), 여자가 92명(72.4%)의 총 127명이었다. 연령은 평균 연령이 20.24±2.80으로 17세에서 44세까지의 범위에 걸쳐있었는데 전문대학졸업 이상자의 정원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가 높은 연령에 속하기 때문이다. 학년별 구성은 1학년이 110명(96.7%), 2학년이 13명(10.2%), 3학년이 4명으로 3.1%였다. 전공별로는 간호학과 학생이 68명(53.5%), 물리치료과 학생이 59명(46.5%)이었으며, 경제상태는 69.3%인 88명에서 중이라고 응답하여 대다수가 중간정도라도 응답하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20명으로 94.4%에 달했으며, 대가족은 7명(5.6%)였다. 임종을 경험한 사람은 87명(68.5%)였으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0명(31.5%)였다. 임상실습 등을 통해 대상자의 임종을 경험한 대학생은 3명으로 아직 임상실습전이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임상실습을 하여도 임종을 경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7)

variables	category	No	%	M±SD
gender	male	35	27.6	
	female	92	72.4	
age(yr)	less than 20	75	59.1	
	20~24	47	37.0	20.2±2.8
	more than 25	5	3.9	
grade	freshman	110	86.7	
	sophomore	13	10.2	
	junior	4	3.1	
major	nursing	68	53.5	
	physical Tx.	59	46.5	
economy	high	23	18.1	
	middle	88	69.3	
	low	16	12.6	
family	nuclear family	120	94.4	
	large family	7	5.6	
personal experience of death	yes	87	68.5	
	no	40	31.5	
client's death experience	yes	3	2.4	
	no	122	96.0	
	no answer	2	1.6	
education experience of other institute	yes	10	7.9	
	no	116	91.3	
	no answer	1	.8	
experience of coffining	yes	36	28.4	
	no	63	49.6	
	no answer	28	22.0	

할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타 기관에서의 호스피스 교육 여부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7.9%)이며, 91.3%인 대다수가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명이었다. 입관의식 경험을 한 대학생은 36명(28.4%)이었다.

- 연구 대상자의 죽음의식(Death Orientation)

연구도구 죽음의식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7748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전과 교육후의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전에 응답한 군과 교육후에 응답한 군이 자료를 분석해보았을 때 군입대, 휴학, 복학, 결석 등으로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짝을 이룬 데이터로 엮을 수 없어 t-test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문항 2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 문항 5 “관을 보면 불안하다”, 문항 13 “죽은 후에 다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문항 21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마음쓰지 않는다”, 문항 23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라는 5개 문항에서 유의수준 .05이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죽음의식의 합계 점수 및 죽음의식 25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의 호스피스 교육전과 교육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호스피스 교육 전 죽음의식 점수가 2.15±.33에 비해 호스피스 교육후 죽음의식 정도가 2.25±.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p=.02$ ). 이것은 호스피스 교육 전에 가졌던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의미의 의식정도가 호스피스 교육 후에 더욱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전·후의 죽음의식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육전·후로 죽음의식의 합계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점수를 보면 성별, 연령그룹, 학년, 전공, 임상실습 중 환자의 임종경험에 따라 죽음의식점수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별에서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의 경우보다 교육전·후의 차이가 유의수준 .022의 수준에서 죽음의식 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도 20세 미만, 20~24세, 25세 이상의 3군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군 간에는 죽음의식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p=.002$ ). 학년에 따라서도 죽음의식의 교육전후 차이가 있었다( $p=.007$ ). 전공도 교육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는데( $p=.001$ ), 물리치료과의 경우가 교육전후의 죽음의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중환자의 임종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전후의 죽음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임상실습

<Table 2> The difference of death orientation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of hospice care (N=127)

items	pre-test	post-test	t(p)
	(N=127)	(N=99)	
	M±SD	M±SD	
1. I fear dying a painful death.	2.41± .87	2.46± .86	.476( .634)
2. Not knowing what the next world is like trouble me.	1.65± .71	1.86± .81	2.084( .038)
3. The idea of never thinking again after I die frightens me.	1.92± .94	1.96± .91	.314( .754)
4. I am not at all anxious about what happens to the body after burial.	2.47±2.32	2.32± .83	-1.320( .188)
5. Coffins make me anxious.	1.71± .85	1.94± .84	2.037( .043)
6. I dread to think about losing control over my affairs after I am gone.	2.04± .89	2.19± .91	1.198( .232)
7. Being totally immobile after death bother me.	2.03± .98	2.19± .98	1.226( .221)
8. I dread to think about having an operation.	2.65± .95	2.71± .91	.428( .669)
9. The subject of life after death troubles me greatly.	1.65± .69	1.82± .76	1.668( .097)
10. I am not afraid of a long, slow dying.	1.85± .85	1.92± .85	.614( .540)
11. I do not mind the idea of being shut into a coffin when I die.	2.58± .85	2.61± .85	.288( .774)
12. I hate the idea that I will be helpless after I die.	2.20± .92	2.33± .88	1.062( .289)
13. I am not at all concerned over whether or not there is an afterlife.	1.99± .88	2.28± .91	2.351( .020)
14. Never feeling anything again after I die upsets me.	1.99± .92	2.19± .91	1.601( .111)
15. The pain involved in dying frightens me.	2.35± .90	2.41± .91	.493( .622)
16. I am looking forward to a new life after I die.	2.42±1.01	2.56±1.00	1.065( .288)
17. I am not worried about ever being helpless.	2.66± .83	2.71± .83	.440( .660)
18. I am not troubled by the thought that my body will decompose in the grave.	2.08± .96	2.23± .98	1.181( .239)
19. The feeling that I will be missing out on so much after I die disturbs me.	2.15± .90	2.28± .94	1.076( .283)
20. I am worried about what happens to us after we die.	1.97± .83	2.08± .85	1.000( .318)
21. I am not at all concerned with being in control of things.	2.09± .77	2.34± .81	2.302( .022)
22. The total isolation of death is frightening to me.	2.19± .91	2.19± .85	.012( .990)
23. I am not particularly afraid of getting cancer.	1.84± .89	2.10± .86	2.214( .028)
24. I will leave careful instructions about how things should be done after I am gone.	2.77± .77	2.66± .74	-1.110( .268)
25. What happens to my body after I die does not bother me.	2.32± .85	2.39± .83	.697( .498)
Average score	2.15± .33	2.25± .36	2.304( .02 )
Total	53.65±8.24	56.30±9.00	2.304( .02 )

<Table 3> The difference of death orientation score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of hospice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ther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Category	pre-test	post-test	difference	F or t(p)
		(N=127)	(N=99)	M±SD	
		M±SD	M±SD	M±SD	
1. sex	male	51.54± 9.22	55.74± 6.54	4.20±10.55	3.869( .022)
	female	54.46± 7.37	56.47± 9.65	2.01±10.37	
2. age	less than 20	54.81± 7.14	57.38± 9.17	2.57± 8.54	6.584( .002)
	20~24	52.45± 9.69	55.49± 6.95	.68± 9.68	
	more than25	45.78± 1.41	43.74± 6.68	-2.04± 6.22	
3. grade	freshman	54.51± 7.52	56.20± 9.33	1.69± 9.85	5.04( .007)
	sophomore	49.31±11.48	56.67± 6.28	7.36± 8.62	
	junior	44.25± 1.26	59.00± 5.66	14.75± 3.85	
4. major	nursing	55.47± 7.31	57.21± 9.56	1.74± 8.63	6.827( .001)
	physical Tx.	51.56± 8.79	54.84± 7.92	3.28± 8.95	
5. economy	high	52.30± 5.82	55.80± 4.18	3.5±10.8	2.851( .081)
	middle	53.81± 8.69	56.37± 9.42	2.81± 7.68	
	low	52.70± 8.75	56.12± 9.38	3.42± 6.58	
6. family	nuclear family	53.49± 8.39	56.40± 9.15	2.91± 9.34	2.689( .07)
	large family	56.43± 4.43	55.58± 8.13	-.85± 6.47	
7. personal experience of death	yes	53.57± 7.94	56.19± 8.51	2.62± 8.63	2.855( .06)
	no	53.83± 8.94	56.83±10.18	3.00± 9.98	

<Table 3> The difference of death orientation score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of hospice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ther independent variables(continued)

Variables	Category	pre-test	post-test	difference	F or t(p)
		(N=127)	(N=99)		
		M±SD	M±SD	M±SD	
8. client's death experience	yes	45.33± 3.06	49.75± 9.22	4.42± 8.03	5.413( .005)
	no	54.02± 8.18	56.76± 8.99	2.74± 8.59	
9. education experience of other institute	yes	56.50± 6	53.92±10.3	-2.58±10.1	2.81( .062)
	no	53.44± 8.4	57.11± 8.44		
10. expirience of coffining	yes		56.94± 8.81		2.72( .068)
	no		55.94± 9.16		

중 환자의 임종경험을 한 대학생의 경우에서 죽음의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일반적 특성 즉, 전공과 임상실습을 종합해서 생각해볼 때,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모두 1학년이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음을 볼 때 전공에 따라 교육전후 죽음의식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임상실습을 경험한 물리치료과 2학년 학생의 응답에 따라 전공, 임상실습에 따른 죽음의식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입관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 결과**

● 자기성찰

간접죽음으로서의 본 입관체험연구의 핵심현상은 “자기성찰”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입관체험을 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 그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 동안 별다른 주체적인 생각 없이 생활을 해왔던 것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유서를 써서 읽은 후에 입관을 한 뒤 밀폐된 공간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새겨 보면서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무가치하거나 가볍게 간파하면서 진지하지 않게 지내왔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입관체험은 아주 뜻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루 하루 바쁘게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야 하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아왔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그 만큼 자신이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었다.

또한 입관체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연계 속에서 간호사

는 간호대상자의 삶을 간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보듬어 간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간호의 폭을 넓히고, 전문직으로서의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기성찰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고 숙연한 자세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부여받은 시간과 사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애착을 더 한층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새로운 각도로 삶을 조명하면서 아름답고 후회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삶의 의지와 각오를 불태우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 후회스러움

참여자들은 입관체험을 통해 죽음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이별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특히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등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았을 뿐 그만큼 베풀지 못했던 점,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함부로 했던 점 등에 관하여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스스로 가책하고 있었다.

“죽음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에게 그 동안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 뱃속에서 고생을 시키고, 22년 동안 살면서 큰 사고는 안쳤어도 많이도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다. 그런데 초강한번 시켜드리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다. 입관체험은 99%가 후회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사소한 것에서 감사한 마음 없이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지 못했던 점에 관하여 후회하였다. 그리고 특히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 삶의 소중함을 깨달음

연구 참여자들은 입관을 체험한 후에 삶에 대하여 새로운

조망을 하게 되었다. 즉, 자신이 속한 시간과 삶에 대해 진지해지고 숙연한 자세를 갖게 되었으며, 그 동안 불만스러웠던 자신의 여건과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환경적인 것을 초월하여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과 후회스럽지 않은 죽음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게 되었다. 아무런 생각없이 소비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귀하게 시간을 생각하고, 시간을 아끼고 잘 쪼개어서 의미있게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소한 것, 혹은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이 떠지면서 소중함과 고마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짧은 입관체험이었지만 새로운 삶을 얻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과 주변, 삶과 죽음을 더 한층 성숙하게 관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자신이 죽은 자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시간 속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회피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죽음을 오히려 가깝게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고, 종교적 신념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이던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입관체험 후에는 긍정적으로 직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동안은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다. 그대도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려고 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 ● 죽음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파악된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단절로서의 죽음”, “슬프고 가혹한 사건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서의 죽음”으로 구분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단절로서의 죽음: “모든 것의 끝”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거의 없으며, 굳이 생각해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죽음은 삶의 끝이며, 모든 관계와 과정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은 종결되는 것이며,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난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죽어 관에 들어 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죽기 전의 내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죽은 것은 한층의 흙에 불과할 뿐이다.”

##### • 슬프고 가혹한 사건으로서의 죽음

연구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떠올리거나 인정하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가능한 회피하면서도 죽음을 떠올릴 때는 자연스러움이나 당연함보다는 언제나 ‘슬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고통스러움, 받아들이기 어려움, 무거운 짐, 긴장감, 섬뜩함, 무서움, 두려움, 압박감’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선적으로 든다고 하였다. 이들 참여자들은 죽음을 ‘사라짐’ 혹은 ‘상실’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다.

“죽음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신이 사양하는 사냥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다. 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내려 준 것 같다.”

##### • 또 다른 세계로서의 죽음

종교를 갖고 있는 참여자들은 죽음을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죽음을 단절이나 모든 것의 종결이라고 인식하는 참여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사후세계를 의식해서 사후세계로 갔을 때 후회스럽지 않도록 현재의 삶을 정말로 열심히 귀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몇몇할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현세보다도 사후의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비중있게 인식하였다.

“관에 들어가 있으면서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승이 끝이라고 믿지 않는다. 또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때문인지 다른 사냥들처럼 그리 두렵거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죽은 후에는 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육체는 그저 고기덩어리 일뿐이다”

#### ● 간호전문직관으로의 통합

참여자들은 입관경험을 통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간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임종을 맞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참여자 스스로 입관을 하면서 체험했던 두려움과 공포감, 외로움과 쓸쓸함,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혼자만 떠나야 하는 슬픔과 아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통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임종간호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간호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이

들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의 유용성에 대해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입관경험이 간호전문직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조차도 이렇게 막상 경험해보니 불안해하는데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종 대상자들은 어떡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심정...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정말 환자의 작은 신음에도 세심하게 간호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입종한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편안함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 것, 거기에 간호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논 의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와 사별이후 유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과(Kim, Kim, Kim & Jung, 2000; Park et al., 2000; Ro & An, 2000; Ro & Kim, 1998),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인과 비전문인의 죽음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람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Choi et al., 1998; Park, 1991; Kim et al., 1999)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발생율을 생각해 볼 때, 호스피스 간호의 질적, 양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호스피스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극히 제한적이며 호스피스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도 일부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과 호스피스시행병원과 단체들에서 운영되는 몇몇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Choi, 1975; Choi et al., 1998; Kim et al., 1999; Park, 2001).

호스피스 간호 전문 인력은 호스피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현장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죽음에 임박한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말기환자를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보건관련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전공영역의 경험과 연결시켜 앞으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호스피스 교육전의 죽음의식은  $2.15 \pm .33$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Baek 등(2001)의 연구결과 호스피스 강좌전 죽음의식 평균점수인  $2.80 \pm .43$ 보다는 낮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80명을 대상으

로 한 Park(1991)의 연구의 자원봉사자 죽음의식의 평균점수 2.06, 호스피스 교육 비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Park(2001)의 연구의 교육 비 이수자 죽음의식의 평균점수 2.17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의 정도와 죽음에 대한 의미의 의식정도가 보통인 중간수준에 속하여 일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호스피스 교육대상 학생들의 경우 이미 가족이나 대상자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68.5%로 Baek 등(2001)의 연구에서의 51.1%보다 많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자세로 변화하여 호스피스 교육전의 죽음의식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후의 죽음의식은  $2.25 \pm .36$ 으로, 교육 전에 비하여 오히려 죽음의식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Baek 등(2001)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강좌 후에 죽음의식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과, Park(2001)의 연구에서 호스피스 교육이수 자원봉사자가 호스피스교육 비 이수 자원봉사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죽음의식정도를 나타낸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임상현장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대학 1학년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호스피스 강좌를 들으면서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고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죽음의식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전공강의를 접하게 되고 임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게 되면서는 변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 교육 전·후 문항별 죽음의식에 유의한 감소를 보인 문항은 5개로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 “관을 보면 불안하다”, “죽은 후에 다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마음쓰지 않는다”,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로 Baek 등(2001)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이 호스피스 강좌 후에 내세관에 대한 항목인 내세에 대해 모르는 것에 대한 괴로움,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의 괴로움, 죽은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 항목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과 비슷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호스피스 교육이 호스피스 임상현장의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 스스로의 입관체험이 이루어져 내세나 죽은 후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관에 대한 느낌, 암에 대한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전후 죽음의식 점수 차를 보면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임상실습중 환자의 임종경험, 주관적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의식정도, 종교유무 종교 유형 그리고 최근

에 접한 죽음여부에 따라 죽음의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Back 등(2001)의 연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별 죽음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Park(1991), Park(2001)의 연구와는 Thorson과 Powell (1990)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의 경우보다 교육전보다 교육 후에 죽음의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Gil(1993)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죽음에 접할 기회가 많아 죽음에 대한 논의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으나 남학생이 물리치료과에 집중해 있어 단순한 성별의 차이이기보다는 전공별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죽음의식이 증가하여 Choi(1975)의 간호 대학생 및 간호사들의 죽음의 공포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교육연한이나 임상경험의 증가에 따라 죽음의 공포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과, Lester와 Abdel-Khalek (1998)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된다는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2001)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고 하류층일수록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연령이 높고 상류층일수록 생의 종말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상 물리치료과의 경우 2, 3학년이 참여하였고 이들이 임상실습중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후 죽음의식이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임상실습 중 환자의 임종경험을 한 경우에서 죽음의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죽음을 사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태도를 자신 속에 도사린 죽음을 향해 취하게 된다.

Kim(2001)는 그의 저서에서 네 가지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반응은 죽음에 대한 사유의 회피, 둘째는 죽음을 삶이 끝난 그 다음의 시간의 미래 즉, 영원한 미래라는 시제로의 인식, 셋째는 죽음을 상태의 변화, 어떤 물리적 양상의 변화로 보는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 간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에 관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한 적이 거의 없으며, 타인의 죽음 앞에서조차 죽음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외면 현상은 젊은 연령에서 오는 한계점일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Kim(2001)은 위장된 소경전략 혹은 죽음 앞에 위장된 백치로 명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죽음을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치 영구미제의 숙제처럼 회

피하거나 피해 다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입관체험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한번도 생각보지 않았고 굳이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죽음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할 수 있었고, 삶에 대하여 진지해지고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삶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반응은 Kim(2001)의 죽음에 대한 반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종교적 색채가 강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삶이 끝난 그 다음의 미래의 시제 속에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미래시제를 무한으로 늘어뜨려 영원으로 바꾸어 놓기를 즐겨한다고 하였다. 더불어서 미래의 시제에 걸맞는 미래의 공간, 아득한 영원의 영토도 상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삶의 상실로 보는 반응도 동시에 보이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입관체험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삶 속에 내재된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입관을 통해 스스로 간접죽음을 체험하면서 간호의 대상이 살아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보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반드시 간호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까지도 임종환자의 심리적 요구나 임종 후의 간호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임종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정서나 요구도 미루어져 왔다. 또한 임종간호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서들은 많은 부분이 무시되고 왜곡되어 왔다(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Nursing Research Center, 1990).

이에 따라 간호학생들이 이러한 입관체험을 통하여 간호대상자들에 대한 시각과 폭을 넓히고, 임종간호에서의 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간호 전문직관 확립에도 통합될 수 있어서 매우 귀중한 학습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스피스 간호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노



인보건복지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호스피스 교과목을 개설하고, 양적연구를 통하여 교육받은 대학생들의 교육전과 후의 죽음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호스피스 교육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행하여 호스피스 간호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양적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 재학생중 <호스피스>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주당 2시간씩 16주간 교육을 받은 2개과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충분히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하는 여학생으로 12명이었다.

양적 자료 수집은 2002년 8월 19일부터 2002년 8월 26일까지 호스피스 교육전의 사전조사와 200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스피스 교육후의 사후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PC+ 8.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t-test, ANOVA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 수집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12월20일까지 개인면담을 통하여 “입관을 경험한 후에 느낀 점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교육을 받기 전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은 4점척도의 기준에서 평균점수  $2.15 \pm .33$ 으로 죽음의식정도가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후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은  $2.25 \pm .36$ 으로, 교육 전에 비하여 죽음의식정도가 높아졌으며 문항별 호스피스 간호강좌실시 전후죽음의식에 유의한 감소를 보인 문항은 총 25개 문항 중 5개 문항이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전후 죽음의식 정도의 차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임상실습 중 환자의 임종경험, 주관적 연령에 따라 죽음의식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대상자들의 입관체험을 분류, 범주화하여 명명작업한 결과는 1. 자기성찰 - 후회스러움, 삶의 소중함을 깨달음, 2. 죽음에 대한 인식 - 단절로서의 죽음: “모든 것의 끝”, 슬프고 가혹한 사건으로서의 죽음, 또 다른 세계로서의 죽음, 3. 간호 전문직관으로서의 통합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호스피스 간호 강좌를 통하여 미래의 노인보건복지전문인력으로 활동할 대학생들이 죽음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추후에 이루어질 임상실습을 통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임종대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개발의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공, 성별, 학년에 따라 죽음의식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죽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공에 따른 호스피스간호교육 내용의 범위, 호스피스간호교육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Baek, S. H., Lee, M. A., & Kim, I. H. (2001). A Study on Change in Death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 Nurses - comparison of pre and post hospice care class. *J Korean Acad Fundam Nurs*, 8(3), 357-365.
- Choi, E. S., Ro, Y. J., Han, S. S., Kim, N. C., Kim, H. S., Park, H. R., & Ahn, S. H. (1998),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Professional Hospice Nurse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8(4), 1027-1035.
- Choi, H. J. (1975). A Study on the fear of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J Korean Acad Nurs*, 5(10), 41-47.
-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1990). *Dying and Nursing - Hopice care*. Seoul : Sumunsa.
- Gil, S. Y. (1993). *A Study on attitudes towards death*.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B. H., Kim, M. S., Kim, H. K., Jeong T. J., Tak, Y. R., Kim, H. R., & Chon, M. Y. (1999).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Hospice Care and its Performance. *J Korean Acad Nurs*, 29(3), 576-584.
- Kim, B. H., Kim, T. S., Kim, E. S., & Jung Y. (2000).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tress,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caregivers of home-stay cancer patient in a community. *Korean J Hosp Pallia Care*, 3(2), 144-151.
- Kim, N. C., & Yang S. (2001). Physical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of a community-dwelling elderly group. *J Korean Acad Nurs*, 31(6), 1012-1020.
- Kim, Y. K. (2001). *Memento mori, Memory the death*. Seoul : Gungri.
- Park, S. C. (1991).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ester, D., & Abdel-Khalek, A. (1998). Suicidality and personality in American and Kuwaiti students. *Int J Soc Psychiatry*, 44(4), 280-283.
- Park, S. H. (2001). *A comparative study about consciousness of death in hospice volunteer - an object of volunteers between the trained and on trained -*.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Taegu.
- Park, T., Song, H. H., Ra, J. R., Seo, I. O., Cho, Y. Y., Park, M. H., Heo, J. H., Kim, E. K., & Park, S. J. (2000). Quality of life changes in patients admitted to the hospice unit. *Korean J Hosp Pallia Care*, 3(1), 18-27.
- Patton, M. Q. (2001).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rd ed.). Newbury park, CA: Sage.
- Ro, Y. J., & Kim, C. G. (1998). A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between the families of hospital hospice patients and those of home-based hospice patients. *J Korean Acad*

- Nurs*, 28(3), 773-785.
- Ro, Y. J., & An, Y. L. (2000). Bereavement Care of Hospice Services in Korea. *Korean J Hosp Pallia Care*, 3(2), 126-135.
- Ro, Y. J., Han, S. S., Yoo, Y. S., & Yong, J. S. (2001). Development of task guidelines for Hospice team member. *Korean J Hosp Pallia Care*, 4(1), 26-40.
- Sung, T. J. (2002). *Today's Educational Evaluation*. Seoul : Hakjisa.
-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 Clinic Psych*, 44(5), 691-701.
- Thorson, J. A., Powell, F. C. (1990). Meaning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 Clinic Psych*, 46(4), 379-387.

## Evaluative Study of Hospice Education using Data Triangulation

Paik, Hoon Jung<sup>1)</sup> · Kim Chunmi<sup>1)</sup> · Choi, Soon Young<sup>2)</sup>  
Park, Soonok<sup>1)</sup> · Moon Jinha<sup>1)</sup> · Kim Jungsuk<sup>1)</sup> · Kim, Aejung<sup>1)</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Purpose:** This research used quantitative research to identify differences in death consciousness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The study was also designed to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nursing education by using a qualitative analysis to examine hospice education experience. **Method:** This study a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Results:** 1. The mean score for the students' death consciousness before the hospice education averaged  $2.15 \pm .33$ , a medium level for death consciousness. The score after education was  $2.25 \pm .36$ , that is, there was higher score for death consciousness after education. 2.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giving their names and categorizing the experience of being in a coffin shown to be self-reflection, regret, recognition to death, death as discontinuation of life, the last closing from everything, death as a sad and cruel event, death as another world, specialist intuition of nursing. **Conclusion:** This research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ursing students to consider death earnestly and realistically through hospice nursing education. We also discovered affirmative changes in the students' viewpoint of death, students who in future clinical practice may work with elders. We also found increases in motives to develop ability to present effective aid to dying patients.

Key words : Hospice, Nursing educ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ik, Hoon Jung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454-5, Gyori, Yejooeup, Yejoogun, Kyeonggido, Korea

Tel: +82-31-880-5372 Fax: +82-31-885-7041 E-mail: hjp711@naver.com